

순교자 주보



이탈렌티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2023년 2월 19일

NO.2187

SCAN ME



주임신부 구동욱 미카엘 micku@kakao.com | 보좌신부 김성현 라파엘 raphaelkimsj@gmail.com
사목회장 남현석 요셉 Email: josephnam2011@gmail.com Tel: 770.827.9987
전화 770.455.1380 | 팩스 770.455.4262 | Email kmccga.office@gmail.com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URL http://www.kmccga.com

<p>안 그래픽스 인쇄, 싸인, 디자인 안희탁 스테파노 404-717-9897</p>	<p>이강연 CPA 미카엘 770-279-2770 info@mklcpa.com</p>	<p>리 장례식장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 넷 770-622-2525</p>	<p>PIWC Group Agency 자동차, 집, 사업체, 중업원 상해 보험 장인옥 베드로 404-644-8658</p>	<p>SB 건축&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철구조물 수리 제작 방성호 크레센시오 678-599-0200</p>	<p>오즈 냉 동 에어콘, 히팅, 냉동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p>
<p>FARMERS INSURANCE 로렌 배 보험 (모니카) 자동차/집/사업체/건강 470-282-1654 3775 Venture Dr. #M202 Duluth, GA 30096</p>	<p>배용자 루시아 보험금융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펀드 678-665-5400 3720 Davinci Court, Suite#150 Peachtree Corners, GA 30092</p>	<p>미소 치과 남상우 시몬 남수진 세실리아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200, Duluth, GA 30096</p>	<p>SMILE 1 DENTAL GROUP 김세희 소화테레사 김상윤 요셉 스마일원치과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203, Suwanee, GA 30024</p>	<p>AAA 이창호 보험 Insurance Checklist 메디케어 신청, 변경 도와드립니다. 이창호 바오로 678-910-0884 cclee@acg.aaa.com 2628 Pleasant Hill Road #700 Duluth, GA 30096</p>	<p>Suwanee 스와니 교정 치과 김범수 니콜라오 678-482-9434 0% Interest 주말 예약 가능 카톡상담(Suwaneeortho)</p>
<p>ALFONE LIFE FINANCIAL & INSURANCE SERVICE 메디케어 / IRA / 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 한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p>	<p>MASTER REALTY 김선민 요안나 부동산 404-285-6472 smkim@master-realty.com</p>	<p>Peachtree Physical Therapy 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 470-238-3683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Suwanee, GA 30024</p>	<p>확실한 카이로프랙틱 더조은 척추 운동상해(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박찬규 레오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p>	<p>만 천 흥 명품 중식 레스토랑 770-454-5640 5953 Buford Hwy NE #105 Doraville, GA 30340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쉽니다.</p>	
<p>Better Homes and Gardens REAL ESTATE 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M. 770-912-8282 O. 404-843-2500</p>	<p>KW KELLERWILLIAMS. 오현정 유리안나 부동산 Juliana OH 678-908-4945</p>	<p>만 천 흥 770-454-5640 5953 Buford Hwy NE #105 Doraville, GA 30340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쉽니다.</p>	<p>만 천 흥 770-454-5640 5953 Buford Hwy NE #105 Doraville, GA 30340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쉽니다.</p>	<p>만 천 흥 770-454-5640 5953 Buford Hwy NE #105 Doraville, GA 30340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쉽니다.</p>	
<p>SINCE 1999 VINEYARD REALTY 시니어 주택전문 (Seniors Real Estate Specialist) ·사업용 건물 ·도지 조셉 김 678-361-6230 켈리 김 770-634-5646</p>	<p>Pinehill Realty 조앤리 아네스 부동산 678-770-1136 realtorjoanne@gmail.com</p>	<p>정승욱 미카엘 변호사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LLC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법 · 유언 무료상담 770-495-9994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p>	<p>오약국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10820 Abbotts Bridge Rd. #240 Johns Creek, GA 30097</p>	<p>So Good (Bridal&Beauty) 678-474-4979 348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sogoodbridal www.sogoodbb.com</p>	
<p>교통사고 상해 이종원 미카엘 변호사 무료상담 678-622-8829 jwlee@jweelaw.com 3483 Satellite Blvd #211S, Duluth (파리바게트 맞은편)</p>	<p>TOP 조경 Lawn Maintenance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남기원 요한 404-966-1919 2547 Old Rockbridge Road, Norcross, GA 30071</p>	<p>정승욱 미카엘 변호사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LLC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법 · 유언 무료상담 770-495-9994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p>	<p>오약국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10820 Abbotts Bridge Rd. #240 Johns Creek, GA 30097</p>	<p>So Good (Bridal&Beauty) 678-474-4979 348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sogoodbridal www.sogoodbb.com</p>	
<p>GIFTS GOLD · CROSS · REPAIRS ·십자가, 성상 · 성화, 묵주, 책 · 신발수선 ·금, 은, 주문제작 · 타-셔츠 프린팅 성물점 770-614-1738 3255 Lawrenceville-Suwanee Rd. #L Suwanee, GA 30024</p>	<p>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SONAMOO 소나무 Auto Repair 리버밴드 오토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Office 770-623-5940 3322 Peachtree Industrial Blvd, Duluth, GA 30096</p>	<p>정승욱 미카엘 변호사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LLC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법 · 유언 무료상담 770-495-9994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p>	<p>오약국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10820 Abbotts Bridge Rd. #240 Johns Creek, GA 30097</p>	<p>So Good (Bridal&Beauty) 678-474-4979 348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sogoodbridal www.sogoodbb.com</p>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 김옥순 수녀

화답송

주님은 자비롭고 너 그 러우시네.

연중 제7주일

성가
입당: 45
봉헌: 210/512
성체: 188/506
파견: 414

제1독서 레위기 19,1-2,17-18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제2독서 코린토 1서 3,16-23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

복음 마태오 5,38-48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청년미사(토)	5:30pm
아침미사	8:30am
교중미사	10:30am
영어미사	12:15pm

평일미사

화요일, 금요일	12:00pm
수요일, 목요일	7:30pm

월간미사

성모신심미사	첫째주 토요일 12:00pm
--------	--------------------

- ◆ 고해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 성시간: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 사무실: 일요일 7:00am-3:00pm
월요일 휴무
화-토 10:00am-6:0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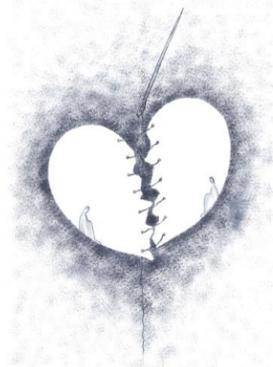
연중 제7주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마태오 5,38-4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8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39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40 또 너를 재판에 걸러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겹옷까지 내주어라.
 41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나, 그와 함께 ① 걸음을 가 주어라.
 42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러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43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② 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③ 하여라.
 45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④ 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⑤ 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⑥ 를 내려 주신다.
 46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47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⑦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시 < 마태오 5,38-48 >
 배영길 베드로 신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마주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마음에
 밀어주는 정성에
 용기 내어
 다시.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았던 구절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였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는 동안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3박4일의 피정을 갈려고 하면 남편에게 얘기 꺼내기 불편했던 마음과 못 가게 하면 할수록 더욱 가고 싶은 열망에 애가 타던 옛날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피정 갈려면 기도와 단식으로 매달리면서 남편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제가 피정에 갈 수 있도록 청하곤 하였습니다. 우여 곡절을 겪으면서 참석한 피정집의 성체 앞에 주저앉아 속상한 마음에 울던 기억들이 또렷합니다.

저는 이런 박해를 받을 수록 남편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편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틀림없이 주님 뜻이 있으리라 믿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고, 자주 감실 앞에 앉아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불편한 마음을 예수님께 고주알 미주알 고해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이런 남편의 통제가 없었다면, 고비 풀린 망아지처럼 저 잘난 맛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열망만으로 무분별한 신앙의 여정을 걷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남편을 통하여 나의 열망을 절제하는 힘과 기도하는 연습을 시키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그런 주님의 도구 역할을 한 남편에게 새삼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기에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지게 됩니다. 송봉모 신부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스며들고, 그분의 인격으로 만들어져 그리스도화 되어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또 하나의 그리스도로 살면서 그분의 손과 발 그리고 입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굶고 비뚤어진 세상에서 형제 자매들과 사제들, 박해하는 이들과 원수까지 손에 손을 맞잡고 입을 모아,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서!”를 노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 뒤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손길을 보면서 그들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 비로서,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우렁차게 우리 안에 울려 퍼짐을 인지합니다.

| 성찰 |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복음 말씀 빈칸 채우기

- ① 이천
- ② 원수
- ③ 기도
- ④ 자녀
- ⑤ 해
- ⑥ 비
- ⑦ 완전한

청년회 불링 Night
 2월 11일 (토) 돌루스 성당과 도라빌 성당 청년들이 함께 불링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일학교
 주일학교 액티비티로 음악과 미술시간이 있었습니다.

송봉모 신부님 특강
 2월 10일 (금) 오전 10시에 대성전에서 송봉모 신부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유산 상속 법률 설명회
 2월 12일 (일) 12시 30분에 대건 도서관에서 교우분들을 위한 법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김은영 헬렌 자매님이 카타누가 새 구역장이 되셨습니다.

2월 10일 (금) McCumming 구역 미사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불과에서 Covid 기금 \$3,000을 연초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St. Vincent de Paul에 전달 하였습니다.

2월 12일 (일) 12시 30분 푸리아 월레모임이 있었습니다.

장례미사
 2월 14일 (화) 주임 신부님, 채수길 신부님, Michael Woods 신부님의 공동 집전으로故 전순홍(요셉) 전임 사목 회장님의 장례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장례미사 및 연도에 참석해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식별에 대한 교리 교육 (2022년 9월 28일)
“친구를 대하듯 자발적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3. 식별의 요소: 주님을 친근하게 느끼기 식별에 관한 교리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식별’에 대한 교리 교육을 다시 이어갑니다. 식별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어디에서 오며 우리를 어떤 결정으로 이끄는지 식별해야 합니다. 오늘은 식별의 필수요소 가운데 첫 번째인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식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 곧 ‘기도’ 중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식별을 위해 없어서 안 될 보조수단입니다. 특히 감정적인 차원과 관련이 있을 때 기도는 우리가 친구에게 말하듯이 단순하고 친근하게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애정 어린 자발성으로 주님과 내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성인들의 삶의 비결은 하느님을 친근하게 느끼고 하느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그들이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참된 기도는 하느님을 친숙하게 대하고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앵무새처럼 기도문을 낭송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고저찌고 (...)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자발적으로 하느님을 대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근함은 하느님의 뜻이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는 두려움이나 의심, 때때로 우리 생각을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을 불안, 불확실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우리 마음을 원통하게 만드는 유혹을 이겨내게 해 줍니다.

식별은 절대적인 확실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식별은 단순한 화학 방정식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식별은 삶에 관한 것이고, 삶이 항상 논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단일 범주의 생각으로 묶일 수 없는 많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확실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가 묘사한 체험을 우리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선을 바라면서

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로마 7,19). 우리는 단순히 이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도 아닙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지침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 관건은 도움이든 장애물이든 주로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일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마르 1,21-28 참조).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더러운 영이 들린 이를 사탄으로부터 구해 주십니다. 곧, 사탄이 태초부터 제시한 그릇된 하느님 모습, 곧 하느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그릇된 하느님 모습에서 그를 구해 내신 것입니다. 이 복음구절에 나오는 더러운 영이 들린 이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심을 알지만,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24절) 하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 같이 생각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지만,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점에 의심을 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우리 삶을 망치고, 우리 열망과 우리의 가장 강력한 포부를 희생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 다며 두려워합니다.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 때때로 우리 내면에서 슬며시 고개를 쳐듭니다. 곧,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생각,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별에 대한 첫 번째 교리 교육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과 만남의 표지는 ‘기쁨’입니다.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이 되어 아름다워집니다. 하지만 ‘슬픔’이나 ‘두려움’은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졌다는 표지입니다.

참회하고 회개하는 사순시기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재의 수요일

2월 10일은 ‘재의 수요일’로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이 날 모든 가톨릭 신자는 머리에 재를 얹는 ‘재의 예식’에 참여하며 참회와 회개를 다짐합니다. 사제는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자주색 제의를 입고,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사제는 지난 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축복했던 나뭇가지를 태운 재에 성수를 뿌려 축복한 다음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재를 얹어 주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 또는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창세 3,19)라고 말합니다. 재를 머리에 얹는 것은 사람이 흙에서 나왔음을 나타내며, ‘재의 수요일’은 이 예절에서 비롯된 명칭입니다.

사순 시기

사순(四旬) 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 40일을 의미하며, 예수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회개와 기도의 시기입니다. 사순시기는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슬픔의 때이면서, 동시에 예수의 부활을 기다리며 영혼의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의 때이기도 합니다. 미사 때 기쁨의 노래인 ‘알렐루야’와 대영광송을 하지 않고, 성가대 찬송이나 화려한 오르간 연주도 자제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친구를 대하듯 하느님을 친근하게 대하면 “하느님의 뜻이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더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우리의 충실한 친구”로 대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자고 당부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마태 19,17) 하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불행히도 그 청년에게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어 마음속에 품은 소망, 곧 “선하신 스승님”을 더 가까이에서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관심이 많고 진취적인 청년이었으며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나, 재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내면에서 감정의 분열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마음을 정하게 강요하지 않으셨지만, 복음은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마태 19,22)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전합니다. 주님을 떠나간 사람은 막대한 재물과 기회가 있어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절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지만,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것,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면 우리 마음에 슬프고 추한 것만 남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식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친근하게 느끼면 의심과 두려움을 부드럽게 녹일 수 있습니다.’ 존 헨리 뉴먼 성인의 아름다운 표현에 따라 우리 삶은 점점 더 하느님의 “온화한 빛(luce gentile)”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 빛을 받아 반짝이는 성인들은 자신들의 시대에서 소박한 몸짓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현존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함께 사랑하며 살아온 부부는 서로를 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정을 담은 기도도 이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점진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실존의 깊은 내면에서 샘솟는 타고난 본성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서서히 인식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기도문을 읊조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여 우리가 그분의 현존을 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생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서 멀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은총을 청합시다. 곧, 친구가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과 우정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 『영신수련』, 53항 참조). 저는 한 신학원의 문지기였던 연로한 수사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할 수 있을 때마다 성당에 가서 제대를 바라보며 “잘 지내시나요(Ciao)” 하고 인사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깝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저는 당신 가까이 있고, 당신도 제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맺어야 할 관계란 이런 것입니다. 곧, 친밀함,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 형제자매 같은 가까움,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미소와 소박한 몸짓입니다.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말은 읊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가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 청해야 할 은총입니다. 곧,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우리를 강요하지 않고 우리가 당신에게서 멀어지더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우리의 충실한 친구로 볼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그분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뇨, 저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네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침묵 중에 우리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 기도와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기도, 감정의 기도, 친밀함의 기도, 말은 적지만 몸짓과 선행으로 하는 기도, 곧 “잘 지내시나요(Ciao)” 기도도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 <https://www.vaticannews.va>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마태오 5,44)

십자가 죽음으로 복수 약속한 고통은 예수님

고대 사회에 적용되던 형벌 원칙인 동태복수법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가해자에게 그대로 보복한다는 것이다. 구약 당시 사회에서도 동태복수법은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이었다.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태복수법의 원칙을 그대로 지켰다.

그런데 동태복수법은 실제 실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그 이후 동태복수법은 금전적 보상제도로 대체됐고, 예수님에 의해 완전히 폐기됐다. 예수님은 악행과 학대를 당할 때 보복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신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칙을 제시하셨다(마태 5,38-48).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 가르침의 특징은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이웃 개념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며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다.

원수에 대한 사랑은 동태복수법이 당연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마태 22,39)는 말씀은 이웃 사랑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한 한계를 완전히 초월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랑의 계명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실행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다(마태 5,43-48). 이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웃과 형제만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했다. 세리들과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기 때문이다(마태 5,46-47).

특히 신약의 마태오 복음에서 언급하는 원수 개념은 이방인을 의미한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을 자기 민족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공동체로 그 의미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나에게 큰 해를 입힌 원수는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원수 사랑은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이웃 사랑의 특별한 형태이다. 진정한 원수 사랑은 원수를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며 그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원수에 대한 사랑은 적개심이나 증오를 소극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마태 5,44) 성경 교리 복음 속 말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았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마태 5,44-46). <히어엄 신부, 평화신문>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3년 2월 12일 (연중 제6주일)

교중미사(10:30am)...	274명	주일헌금	\$ 4,197.00
아침미사(08:30am)...	87명	교무금	\$ 7,565.00
영어미사(12:15pm)...	83명	감사헌금	\$ 100.00
청년미사(05:30pm)...	71명	성물방	\$ -
미사참례 총	5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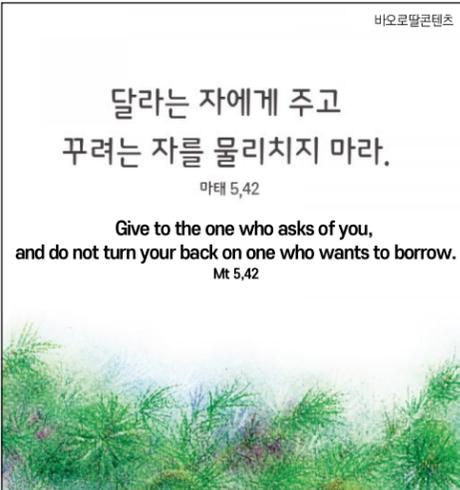
교무금 명단

곽성훈 (2)	김희연 (2)	방남규 (1~2)	신옥기 (2)	이수진 (2)	지혜정 (2)
김상순 (2)	남명애 (2)	방영택 (1~2)	오명혜 (2)	이원선 (2~3)	최인영 (2)
김성길 (1~4)	민병선 (1)	변성주 (2)	윤봉권 (1~3)	이종길 (2)	최창희 (2)
김영배 (2)	박남준 (1~3)	서상희 (2)	윤성진 (2)	이창호 (2)	태영훈 (20)
김영환 (2)	박영석 (2)	석대진 (2)	이강연 (2)	전근섭 (2)	한규향 (2)
김용준 (2)	박종흠 (2)	설재규 (2)	이광자 (2)	정복순 (1)	한성인 (2)
김원봉 (2)	박지은 (2)	손철영 (2)	이상엽 (2)	정재희 (1)	
김중환 (2)	박지현 (2)	송용덕 (2)	이석균 (3)	조기영 (2)	

- ### 교무금/ AA 기금 약정/ 봉헌 안내
- 2022-2023 회계연도 **교무금 약정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을 내실 때 **월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AA기금 약정도** 계속 성당 사무실에서 받고 있사오니 약정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봉헌**시 이름과 신자 번호, 봉헌 내역 등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생미사, 연령미사 봉헌은 우편으로 미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22/2023 교무금 월 약정자

강규상	김호수	서혁규	왕복실	이현두	조성환
강용조	김홍섭	석대진	원동훈	이현옥	지승남
곽흥배	김 훈	설재규	유영한	이흥규	차영수
김경숙	남상우	손철영	유중현	이홍철	최동순
김남우	문명재	송무남	이동춘	장민재	최문영
김루시아	박근우	송용덕	이복화	전 흥	최지남
김미자	박두환	심충섭	이봉조	전근섭	최옥란
김영길	박종흠	심호용	이수진	정승욱	한성인
김영철	배정희	안승범	이승구	정용선	허민환
김일환	백현숙	양경직	이종길	정지윤	홍동욱
김태규	서상희	양재준	이주미	정창래	홍영기
김향순	서재욱	오상수	이창호	조보현	



- ### 본당 방역지침 변경 안내
- 마스크 착용은 자율
 - 미사중 응송 가능
 - 고해성사는 사제 사무실에서
 - 성수는 운용하지 않으며, 비치된 Sanitizer는 그대로 운용
 - 미사 관련이 가능한 경우(애들랜타 교구청 지침)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 코비드 양성반응자와 접촉했거나, 증상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 CDC가 분류한 고위험군에 포함된 경우(노약자)

- ### Amazon 스마일 펀드레이징 캠페인
- 청소년기금마련을 위한 아마존 스마일 프로 그램은 구입금액의 0.5%를 본당으로 보내어 션이 됩니다.
 - 이용방법: smile.amazon.com 에서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2023년 AA 기금 납부 현황

2023년 2월 12일 (연중 제6주일)

교구 할당액	\$ 44,200.00
누계 납부액	\$ 6,825.00
달성률	15.4%
금주 납부액	\$ 1,160.00

2023 AA 기금 납부자

김면기	남현석	박정애	이수진	한규향
김상국	박연순	윤성진	전근섭	한성인
김원봉	박재현	이석균	정창래	

금주 후원금

감사헌금	익명
Angela Fund	익명

구역미사

2/24 (금) 7:30 pm	In Town 구역 전홍 토마스 404-797-1249
3/3 (금) 7:30 pm	Alpharetta 1 구역 조보현 프란치스코 404-422-0091
3/10 (금) 7:30 pm	Marietta 나눔구역 허윤제 올리벳타 678-387-7585
3/17 (금) 7:00 pm	Forsyth 구역 김원봉 대건안드레아 678-779-1387

전례 봉사

날짜	해설	독서	복사
2/18 (토) 오후 5:30	고승찬	김범수 유승원	양다현 박재호 김서윤
2/19 (일) 오전 8:30	황윤숙	서상희 서정원	박시현 이재후
2/19 (일) 오전 10:30	박미혜	김대용 김철수	성리디아 양다해 김서중
2/19(일) 오후 12:15	Sara	Matthew Seo	김태두 소현서 안상준
2/22(수) 오후 8:00	이숙자	고근배 고숙영	김태훈 이하윤
2/25(토) 오후 5:30	윤 결	이성규 박주현	안상우 남소호 홍지아
2/26 (일) 오전 8:30	이진화	윤준호 윤영미	전지우 도이삭
2/26 (일) 오전 10:30	박줄리	김현구 류호신	최예은 김아론 김서중
2/26(일) 오후 12:15	김태훈	Derek 김소현	양다현 박시현 오준서

본당 캘린더

2월 17일~19일	• 중등부 피정
2월 19일	• 예비자 파견식
2월 22일	• 재의 수요일
2월 25일	• 예비자 선발식 (교구)

- ### 사순시기를 준비하며
- 성지 가지 회수** (성당 입구, 사무실) 2월 19일 (주일)까지 성지 가지를 회수 합니다.
 - 재의 수요일 미사 안내**
일시: 2월 22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대성전
 - 사순절 십자가의 길 예절 봉헌**
일시: 2월 26일 (주일)부터 4월 2일 (주일)까지 매주 주일 오전 9시 45분 대성전에서 십자가의 길 예절이 있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석 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AA 약정 안내

2023년 본당 할당액: \$ 44,200

- 약정 일시: 2월 18일(토)/ 19일(일) 약정서 작성
- 교구에서 맥으로 AA 약정에 관한 편지가 가더라도 관계치 마시고 본당 사무실로 약정서 제출 및 납부
- 약정서는 영문으로 작성 | Payable to: KMCC
- 문의: 사무실 770-455-1380

- ### 유스권진반 수업 (주일학교)
- 일시: 3/5-5/7, 9:30am, 112호
문의: 심호용 릿다 678-848-1943

- ### 주일학교 교사 모집
- 문의: 이진화 로마나
kmccga.youngadult@gmail.com

- ### 망치회 도넛 판매
- 일시: 2월 19일(일) 주일 친교실
 - 문의: 원동훈 770-910-5656

- ### 2023 매일 미사 책 신청
- 신청 장소: 주일 친교실 | 문의: 770-455-1380
 - 연간 구독료: \$80

- ### 본당 알림
- 성가대원 (주일 8시30분 미사)** 및 반주자를 모집 합니다. 문의: 김진용 (678-478-7830)
 - 장례 미사 및 연도** 요청은 연령회에 연락바랍니다. 문의: 이수진 브렌다노(404-933-8233)
 - 혼인 성사**를 요청하는 경우 6개월 전에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 알루미늄 캔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의: 박정미 로시타 (901-832-3306)
 - 보관 중인 연도책은 사무실로 반납 바랍니다.
 - 2022년 주보 광고비와 2023년도 카렌다 광고비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성물방 시간 : 일요일 9:30am~1:00pm (예약 주문/상당가능)
 - 주보 관련 문의 : kmccga.bulletin@gmail.com

- ### 성당 학교 소식
- 주일 학교 안내**
시간: 매주 일요일, 10:30am~12:00pm
문의: 이진화 로마나
kmccga.youngadult@gmail.com
 - 토요 대건 한국학교**
시간: 매주 토요일, 9:15am~12:30pm
문의: 노시현 네오미시아 678-677-3515

봉사자들을 위한 성서 영성 독서회

- 내용: 우리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
- 기간: 2월 9일 부터
- 일시: 수요일 오전 10:30-12:00, 소성당
목요일 오전 10:30-12:00 (신설반)
목요일 오후 6:00 - 7:00, 대성전
- 문의: 이혁륜 404-518-7373

- ### 2023년 부활 견진교리반 모집
- 일정: 2023년 2월26일~ 4월9일
 - 시간: 매주 일요일 9:00am ~ 10:15am
 - 접수마감일: 2023년 2월19일
 - 접수처: 사무실
 - 문의: 나상숙 스킨라스티카 678-933-7313

빛과 소금 2월 행사 (30-50대 친목 모임)

- 일시: 2월 19일(일) 1:30pm
- 장소: Kids Empire Rivermont (실내 놀이터)
8465 Holcomb Bridge Rd, Johns Creek, GA 30022
- 문의: 최철민 베드로 470-979-8312
kingsaram99@yahoo.com

▶ 매월 셋째 주일은 정기모임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 중에 계신 분들

김미영(인덕마리아)	이기산(스테파노)
김원봉(대건 안드레아)	이금숙(세실리아)
류앵래(세실리아)	이수진(브렌다노)
민병숙(라파엘라)	조갑득(마리아)
박덕재(빅토리아)	조경희(글라리아)
박정자(데레사)	채종현(아오스딩)
박명하 (요한)	최대일(프레드릭)
유옥희(모니카)	최순례(아나타시아)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2022년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견진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유아 세례식

- 일시: 3월 4일 (토), 오후 3시, 대성전
- 문의: 사무실 770-455-1380

성 루가 의료 봉사회 봉사자 모집

성 루가 의료 봉사회 자원 봉사자와 진료를 해 주실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승남 토마스 470-747-2000
- ▶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정기진료

개인컵을 사용합시다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성당 안에서 1회용컵 줄이기 함께해요!

2023년 청년 사순피정

내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 4)

- 일정: 3월24일(금)8:00pm ~ 3월26일(일)11:00am
- 장소: Monastery of the Holy Spirit (Conyers, GA)
- 비용: \$80
- 대상: 모든 청년
- 신청문의: 최수연 엘리사벳 770-328-0796

페루 '간또그란드' 단기선교 참가자 모집

신청서 / Register

일시: 5월24일 (수)~6월6일 (화)

신청 인원 및 자격: 대학생18세~65세 (12명)

봉사내용: 노동, 율동, 찬미, 태권도등
봉사자는 10주 동안 토요일 기도 및 준비 모임 참석

문의: 김용준 로마노 770-895-1000

•후원 물품 및 후원금을 주일 친교실에서 3월부터 접수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스페인 "이나시오의길"과 파티마 "성모성지" 순례

순례기간: 2023년10월30일-11월11일 (12박 13일)

순례지와 바라도르 숙박:
예수회 창설자인 이나시오성인과 하비에르성인의 발자취(이나시오의 길)와 가톨릭 신앙의 중심지를 순례 하며 유명도시의 바라도르에서 숙박

바르셀레로나, 만레사, 몬세랏, 사라고사, 하비에르, 로올라, 산티아나델 마르, 코바동가, 캄가스, 오세브레이로, 산티아고, 파티마, 살라망카, 아빌라, 툴레도

지도신부: 구동욱 미카엘 신부님
모집 인원: 25명 (선착순 마감)
신청 서류:
인적사항: 성명, 세례명
휴대폰 번호, 여권 Copy
신청금: \$500
순례 비용: \$3,800
문의: 박철민 리나 404-510-4604
rina311@hotmail.com